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이외선¹, 구혜자^{2*}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경성대학교 간호학과

Differences in Smartphone Addic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Lee Oi Sun¹, Gu Hye Ja^{2*}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s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의사소통능력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B와 C시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23.0을 이용하여 빈도, Independent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과 스마트폰 중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성지능의 하위 영역 중 감성활용, 감성조절과 스마트폰 중독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을 잘 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수준과 의사소통능력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을 향상시켜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스마트폰 중독, 간호대학생, 차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Smartphone addic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the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228 associate nursing students from the population that attend 2 university in B and C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November 28 to December 16, 2016.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 Win 23.0. Emotional intelligence level were no significantly correlation with smartphone addiction. But the subscales of emotional intelligence(use of emotionals and regulator of emotionals) were a negative correlation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higher the level of use of emotionals and regulator of emotionals, the lower the smartphone addiction. Emotional intelligence level were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higher the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ability. Therefore, To reduce smartphone addiction and to increase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the program for increase emotional intelligence level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ability, Smartphone addiction, Nursing students, Differences

*Corresponding Author : Gu Hye Ja (ghj9999@daum.net)

Received January 10, 2018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February 23,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치료적 도구로[1] 대상자와의 긴장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2].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7)에서는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학습성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로 제시하고 있고, 의사소통능력을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한 시점에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 실습 시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학생과의 관계,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3]. 또한 간호사의 정보 제공적 · 친화적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4, 5], 프리셉터 간호사의 지원형 · 반영형의 의사소통능력은 신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며, 조직사회화 정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6]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 대상자 뿐 만 아니라 동료 간호사와 다른 의료팀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공감역량[7], 감성지능[8], 비판적 사고성향[9]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기능 지원뿐만 아니라 tv시청이 가능하고 카메라, 게임, 멀티미디어 기능 등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에는 유용하나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과다 사용함으로써 중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10]. 선행연구에서 불안과 우울[11], 외로움[12] 등의 부정적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간호대학생은 대부분이 여학생이며 실습과 이론 수업을 병행하는 교육과정과 면허증 관련 국가고시 시험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13].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14]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5]에서 정서표현능력이 부족한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뇌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타인의 표정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의사소통능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감성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비판적 사고성향, 감성지능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낮게 되면 간호대상자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타인의 감성이해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고 감성지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만 본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의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본 선행연구[18]에서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변수와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분석보다 감성지능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 변수 간의 관련성 규명이 연구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선행연구[18]의 분류기준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 수준이 높은 그룹(상위 25%)과 낮은 그룹(하위 25%)으로 나누어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의 감성지능 수준과 스마트폰 중독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게 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과 스마트폰 중독 및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스마트폰 중독 및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스마트폰 중독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감성지능 수준이 높은 그룹(상위 25%)과 감성지능 수준이 낮은 그룹(하위 25%)간의 스마트폰 중독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스마트폰 중독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과 스마트폰 중독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C시 2개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적합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19] 근거로 유의수준 = .05, 효과크기 0.30, 검정력 .9로 G-Power 3.1.9.[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172명이었다. 따라서 불충분한 연구자료를 고려할 때 탈락률을 20%를 고려하여 총 250명에게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이 중 회수되지 못한 22부를 제외한 최종 228명을 대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SNS사용 유무, 간호학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감성지능

Wong과 Law[14]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도구를 Hwang[2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총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하위요인별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

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3.3 스마트폰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21]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총 4개 하위요인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2.3.4 의사소통능력

Rubin[22]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 능력 구성개념에 Hur[23]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23]가 수정·보완시 Cronbach's $\alpha = .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SU-16-11-002)을 받은 후 수행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으로 동의한 간호학생들에게 설문지를 1회 배포하였다.

자료수집은 훈련된 연구보조원을 통하여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응답에 걸린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자료의 비밀유지, 연구참여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 참여와 중단이 가능함을 알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로 인한 이득과 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과정 중에도 자유롭게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려주고 서면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교성적에 반영되지 않음을 다시 알리고 설문지 각 상단에 다시 설명하였으며, 설문지를 주고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Table 1. Emotional intelligence, Smartphone addic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Variables	Categories	n(%)	Emotional intelligence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28(12.3)	3.64±.76	-.43	2.30±.52	-1.52	3.62±.61	.48
	Female	200(87.7)	3.59±.46	(.661)	2.45±.45	(.130)	3.58±.39	(.629)
Grade	1st ^a	48(21.0)	3.59±.48		2.47±.55		3.71±.49	
	2nd ^b	37(16.2)	3.69±.55	1.75	2.49±.39	.619	3.72±.35	8.67
	3rd ^c	69(30.3)	3.49±.61	(.156)	2.41±.47	(.604)	3.38±.44	(p<.001)
	4th ^d	74(32.5)	3.66±.37		2.38±.43		3.62±.32	c<d
Use of SNS	Yes	215(94.3)	3.61±.51	.85	2.43±.46	.95	3.59±.43	1.19
	No	13(5.7)	3.48±.45	(.395)	2.31±.42	(.343)	3.45±.31	(.232)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Dissatisfied ^a	20(8.8)	3.44±.53		2.59±.40	3.81	3.43±.46	6.04
	Neutral ^b	72(31.6)	3.57±.46	4.51	2.41±.43	(.023)	3.56±.40	(.003)
	Satisfied ^c	136(59.6)	3.70±.51	(.012)	2.36±.50	c<a	3.69±.40	a<c
Nursing satisfaction	Dissatisfied ^a	47(20.6)	3.37±.59		2.61±.35		3.40±.45	6.06
	Neutral ^b	87(38.2)	3.52±.41	4.48	2.45±.47	2.04	3.49±.39	(.003)
	Satisfied ^c	94(41.2)	3.67±.51	(.012)	2.39±.47	(.132)	3.66±.42	a,b<c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스마트폰 중독 및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제 변수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감성지능 점수는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상위그룹(상위 25% 그룹)과 하위그룹(하위 25%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들 그룹간의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이 200명(87.7%), 4학년 74명(32.5%)이었다. SNS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215명(94.3%)로 많았고,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한다' 136명(59.6%), 간호학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94명(41.2%)로 가장 많았다.

3.2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스마트폰 중독 및 의사소통능력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평균 5점 만점에 3.60±.51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자기감성이해 3.79±.56점으로 가장 높고, 타인감성이해 3.63점±.52점, 감성조절 3.53±.60점, 감성활용 3.45점±.61점 순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2.43±.46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일상생활 장애 2.49±.53점으로 가장 높고 금단 2.57±.53점, 내성 2.48±.54점, 가상세계지향 1.88±.62점 순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5점 만점에 3.58±.42점이었다 (Table 2 참조).

Table 2.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N=228)

Variables	Categories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ppraisal	3.79±.56
	Others' emotionals appraisal	3.63±.52
	Use of emotionals	3.45±.61
	Regulator of emotionals	3.53±.60
	Total	3.60±.51
Smartphone addiction	Daily living disorder	2.49±.53
	Virtual world orientation	1.88±.62
	Forbidden	2.57±.53
	Tolerance	2.48±.54
	Total	2.43±.46
Communication ability		3.58±.4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스마트폰 중독 및 의사소통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스마트폰중독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감성지능은 대학생활만족도와 간호학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을 만족하는 군이 만족하지 않는 군보다($F=4.51, p=.012$), 간호학을 만족하는 학생은 만족하지 않는 군($F=4.48, p=.012$)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은 대학생활을 만족하지 않는 군이 만족하는 군($F=3.81, p=.012$)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간호학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이 3학년($F=8.67, p<.001$), 대학생활을 만족하는 군이 만족하지 않는 군($F=6.04, p=.003$), 간호학을 만족하는 군이 만족하지 않는 군($F=6.06, p=.003$)보다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4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 능력

대상자의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능력 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평균이 상위 25%인 3.94점 이상(51명)과 하위 25%인 3.31점 이하(55명)로 나누어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보았을 때 스마트폰 중독 하위 영역 중 가상세계지향에 감성지능 수준이 하위 25% 대상자가 감성지능수준이 상위 25%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12, p=.036$). 의사소통능력은 감성지능수준이 상위 25%인 대상자가 하위 25%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8.53, p=.001$).

Table 3. Difference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between the Lowest 25% group and the Highest 25% group of Emotional Intelligence

Variables	The Lowest 25% group (n=55)	The highest 25% group (n=51)	t(p)
	Mean±SD	Mean±SD	
Smartphone	2.41±.42	2.32±.63	.88(.377)

addiction			
Daily living disorder	2.53±.60	2.32±.63	1.24(.215)
Virtual world orientation	2.00±.63	1.74±.59	2.12(.036)
Forbidden	2.54±.45	2.40±.76	1.10(.272)
Tolerance	2.36±.34	2.46±.80	-.85(.395)
Communication ability	3.21±.34	3.88±.45	-8.53 (p<.001)

3.5 감성지능과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감성지능과 스마트폰 중독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r=-.12, p=.051$)으로 나타났고,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r=.6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과 의사소통능력은($r=.01, p=.855$)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하위 영역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성활용($r=-.17, p=.008$), 감성조절($r=-.18, p=.005$)과 스마트폰 중독이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을 잘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하위 영역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감성이해($r=.56, p<.001$), 타인감성이해($r=.51, p<.001$), 감성활용($r=.53, p<.001$) 및 감성조절($r=.51, p<.001$)이 의사소통능력과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및 감성조절을 잘 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4. Correlations of among Variables

(N=228)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r(p)	r(p)
Emotional intelligence	-.12(.051)	.60(<.001)
Self- emotional appraisal	-.03(.595)	.56(<.001)
Others' emotionals appraisal	-.47(.483)	.51(<.001)
Use of emotionals	-.17(.008)	.53(<.001)
Regulator of emotionals	-.18(.005)	.51(<.001)
Smartphone addiction	1	.01(.855)
Communication ability	.01(.855)	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고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감성지능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감성지능과 스마트폰 중독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자미디어와 감성지능의 관계를 연구한 국외의 연구[24]에서 미디어의 전체 사용시간과 감성지능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3년제 보건 의료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5]에서 스마트폰 위험 사용군의 정서지능 점수가 일반 사용자군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15세 이상 남녀 386명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스마트폰의 습관성 사용행동과 중독성 사용행동과의 관계를 본 국외연구[26]에서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 27]에서 감성지능과 스마트폰 중독이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에서 감성지능이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하위 영역 중 가상세계지향에서 감성지능이 낮은 군이 감성지능이 높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감성지능이 감정 정보처리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동기를 부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감정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하여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가상세계 지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스마트폰중독과의 유의수준이 .051로 나타나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해 추후 표본수의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과 스마트폰 중독군 만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다.

감성지능 하위 영역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는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이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국외연구[24]에서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을 잘 할수록 컴퓨터, 태블릿, 아이폰 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9]의 연구에서 인터넷 몰입과 정서지능 전반과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인터넷 몰입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인 정서활용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도 정서활용, 정서조절 순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연구[25]에서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 군이 일반사용자군보다 자기통제력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과잉중독에 속하여 특정 활동에 과다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로[3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32]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활용은 좋은 기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서 어려운 장애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고 정보를 체계화하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33], 감성활용을 잘 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를 긍정적 감정으로 활성화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건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감성활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감성조절은 자신의 긍정적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을 줄이려는 능력[33]으로 감성조절을 잘 못할 경우 부정적 감정을 경험시 현재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싶은 요구만 강해져 쉽게 접근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감성조절과의 관계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성지능 중 감성활용과 감성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 간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의 모든 하위영역과 의사소통능

력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8]에서 감성지능과 감성지능 모든 하위 영역이 의사소통능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감성지능이 높은 경우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여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의사소통과정에서 충돌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35]. 선행연구에서[34]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적용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35]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감성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선행연구[36]에서 감성지능과 인문학적 소양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도 인문사회과학을 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대학생들에게 독서, 토론,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 예술 역사, 철학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활동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평점 3.59점이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Park[37]의 연구 3.45점, Park과 Choi[38]의 연구 3.56점보다는 높았고, Yi[39]의 연구 3.67점 보다는 낮은 상태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이는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되기에 간호대학생의 약간 높은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은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다양한 의사소통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40]. 본 연구에서 3학년의 의사소통능력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41]와 일치한다. 이는 3학년은 임상실습을 시작하게 되는 학년으로 임상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정적 감정, 대처능력 저하 등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히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3학년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반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2개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태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이 있으며 대상자의 감성지능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나눈 표본수가 적은 상태로 향후 표본수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필

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평균이 상위 25%인 3.94점 이상(51명)과 하위 25%인 3.31점 이하(55명)로 나누어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본 결과 감성지능이 상위 25%인 군이 하위 25%인 군보다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성지능 하위영역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성지능 하위 영역 중 감성활용($r=-.17, p=.008$), 감성조절($r=-.18, p=.005$)이 스마트폰 중독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을 잘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감성지능수준이 상위 25%인 대상자가 하위 25%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8.53, p<.001$).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과는 정의 상관관계($r=.6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중 감성활용과 감성조절 능력을 함양시켜 스마트폰 중독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J. Oi. (2008).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Unpublished docto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2] T. J. X. Jasmine. (2009). The use of effective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practice. *Singapore nursing journal*, 36(1), 35-40.
- [3] S. Y. Jung. (2013). The structural model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6), 3333-3352.
- [4] M. S. Seo & Y. I. Park. (2016). The Communication Styles and Nursing Service Satisfaction of Clinical

- Research Nurses Perceived by Clinical Subjec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59-566.
- [5] H. L. Seo, H. K. Eom, Y. K. Seo, M. J. Choi, S. I. Im, & S. M. Shin. (2016). Relationship among Nurses' Communication Style, Nursing Service Satisfaction Hospital Service Satisfaction Perceived by Patients' Family and Intent to Revisit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2(3), 368-378.
- [6] Y. C. Park & H. S. Park. (2016). Clinical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ccording to communication style of preceptors as perceived by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1), 42-50.
- [7] E. J. Ji. (2014).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85-1697.
- [8] O. S., Lee & M. O. Gu.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49-2759.
- [9] S. H., Lee & S. E. Chung. (2014).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 Contents Assoc*, 14(12), 340-349.
- [10] J. K. Bae & H. M. Jeong.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factors by including functional attributes of smart phone adoption. *The e-Business Studies*, 9(4), 337-361.
- [11] E. Y. Koh & E. H. Kim. (2017). The Impacts of anxiety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419-429.
DOI : <http://doi.org/10.14400/JDC.2017.15.5.419>
- [12] I. G. Kim, S. W. Park & H. M. Cho.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637-648.
DOI://doi.org/10.5762/KAIS.2017.18.1.637
- [13] G. S. Seo & S. Y. Ba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life stress, and family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4), 398-407.
- [14]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 [15] S. A. Park & K. W. Park. (2017).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ir Smart Phone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cep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255-263.
DOI : <http://doi.org/10.15207/JKCS.2017.8.9.255>
- [16] M. J. Lee.(2009). Differ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11), 201-211,
- [17] O. S. Lee & M. J. Kim.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skill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19-328.
DOI : <http://doi.org/10.14400/JDC.2017.15.7.319>
- [18] J. E. Song & H. J. Chae. (2014).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02-512.
DOI : <http://doi.org/10.5977/jkasne.2014.20.4.503>
- [19]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20] P. J. Hwang.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2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Development of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22] R. B. Rubin. (1990). Communication competence. In: Phillips GM, Wood JT, editors.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arbondale, IL: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94-129.
- [23]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4] W. AbdelKader & M. Elnakeeb.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media and emotional intelligence among youth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and*

- Health Science*, 6(5), 63-77.
- [25] J. E. Choi, E. J. Seo, E. H. Lee. & M. S. Yoo. (2014). Smartphone Addic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control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1(1), 44-51.
DOI: <http://doi.org/10.21184/jkeia.2017.02.11.2.217>
- [26] V. Deursen, A. J. Bolle, C. L. Hegner, S. M., & P. A. Kommers. (2015). Modeling habitual and addictive smartphone behavior: The role of smartphone usage types,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tress, self-regulation, age, and gend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411-420.
DOI: 10.1016/j.chb.2014.12.039
- [27] H. H. Park, M. Y. Jang. (2017).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Level on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2), 217-227.
DOI :10.21184/jkeia.2017.02.11.2.217
- [28] M. K. Ji, Y. M. Kim & S. Y. Kim. (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ports Activity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Smart Phone Addiction and Antisocial Tendency for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3), 271-282.
- [29] H. M. Lee. (2008). Commit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30] Ahn, H. Y.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31] M. Y. Sun.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Smart phone, Emotional Intelligence, Self-control and Psychological Detachment on Emotional Exhaustion and Study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ungju*.
- [32] S. H. Lee. (2014).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thesis, In Je University, Kimhae*.
- [33] P. Salovey & J. D. Mayer.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34] J. Y. Ha & S. Y. Jeon. (2016).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264-273.
- [35] O. S. Lee & M. O. Gu.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482-778.
- [36] J. Y. Ha & S. Y. Jeon. (2016).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264-273.
DOI : <http://doi.org/10.5977/jkasne.2016.22.3.264>
- [37] J. H. Park. (2010).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and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202-212.
- [38] J. W. Park & M. S. Choi. (2009).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8(3), 351-360.
- [39] Y. J. Yi. (2014).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463-470.
- [40] S. H. Kim & M. A. Lee. (2014).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3), 332-341.
- [41] M. S. Song, H. J. An & Y. H. Chung. (2010).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 5(1), 40-48.

이 외 선(Lee, Oi Sun)

[정회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성지능, 간호교육, 성인간호
- E-Mail : leeosun@daum.net

구 혜 자(Gu, Hye Ja)

[정회원]



- 2008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중년, 여성, 기본간호
- E-Mail : ghj9999@daum.net